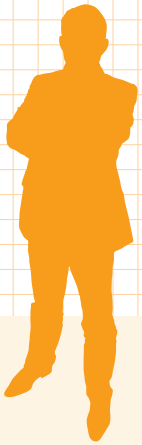
2014년
세계 대도시 시장 신년사



뉴욕市 |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시장
런던市 |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시장
파리市 | **베르트랑 델라노**(Bertrand Delanoe) 시장
베를린市 | **클라우스 보베라이트**(Klaus Wowereit) 시장

뉴욕市
빌 드 블라시오
(Bill de Blasio) 시장

○ 2007년 시작된 경기대침체(Great Recession)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와 도시 전체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음

○ 하지만 뉴욕시의 46%가 여전히 저소득층 특히 빈곤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뉴욕시 중산층을 압박할 뿐 아니라 뉴욕시 전체의 위기요소가 되고 있음

○ 따라서 올해는 특별히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와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인종과 소득계층 간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 우선 과학, 기술, 공학, 수학부문에 대한 교육수준과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강화시킬 것임

- 향후 8년 안에 뉴욕시 내 주요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관련 주요 기술교육 전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기업 성장이 아니라 뉴욕 시민들이 일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주요 목표임
- 특히 의료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각 기술계층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시립대와 고등학교에서 관련 기술 및 내용을 습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대학졸업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직업을 갖기 전, 혹은 퇴직 이후에 친환경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종일반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중학생을 위한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함

○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전년도 예산에서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2015 ~ 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울 것임

○ 경쟁력 있는 산업과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여 시간당 최소 인건비를 인상하는 등 실업률 감소를 위한 기업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창업지원을 지속할 것임

○ 비전 제로(Vision Zero) 프로그램 시행으로 교통사고율을 최소화하며, 사고 시 응급상황 대처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구급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교육도 강화할 예정임

○ 특히, 기상 악화로 도시 교통 마비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데 주력할 것임

○ 이민자가 많고 다양한 소득계층과 인종이 섞여 사는 뉴욕의 불평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

시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것임

○ 총기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경찰이 협력하여 지역단위별로 치안문제를 개선할 것임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045-14/state-the-city-remarks-mayor-de-blasio-prepared-delivery#/0

런던市 **보리스 존슨** (Boris Johnson) 시장

○ 현재 영국의 경제가 전 분야에 거쳐 회복세에 있으며 특히 런던은 지난해에 3.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영국 전체 GDP에서 25%를 차지하여 어느 때보다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임. 2014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야 함

○ 지난해 주요 성과는 런던의 동서를 연결하는 새로운 광역도시철도인 '크로스레일'의 절반 이상의 건설공정의 진행, 지하철 지연율이 40% 감소, 기존 노선 연장 계획 등 교통인프라 개선 작업의 순조로운 진행, 최근 2년간 11% 감소한 범죄율, 개선되는 대기오염,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64% 감소한 화재발생율이 있음

○ 현재 런던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런던 플랜'에 5개의 새로운 기회 지역을 지정하고 고속철도 및 광역도시철도와의 연계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 또한 10만 호의 가용 주택(Affordable Homes)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해외투자 유치를 촉진해야 함. 이를 위해 범죄율을 낮추고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에 주력할 것임

○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북동쪽 리밸리 지역의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고, 동남쪽 벡슬리 지역의 주요 도로를 확충하는 작업이 진행 중임. 이와 더불어 광역도시철도 수혜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해 총 4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

○ 런던 동부에 위치한 올림픽 공원이 공사를 마치고 개관할 예정이며, 올림픽 부지 내에 대학 및 기업을 유치하여 4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계획임

○ 또한 학교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함

○ 마지막으로, 범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3만 2천 명의 경찰 인력을 유지하고,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6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http://www.london.gov.uk/moderngov/mgChooseMDocPack.aspx?ID=4840&SID=9865

파리市 **베르트랑 델라노** (Bertrand Delanoe) 시장

○ 2014년도 파리는 시민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파리를 경쟁력 있고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

○ 2014년에도 상당한 수의 주거 및 육아시설이 늘어날 것임. 사회적 주택이 7,500호 추가 건설되고, 어린이집도 1,1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늘어날 것임

○ 파리 12구(區) 샤롤레-로통드(Charolais-Rotonde)에 신규로 건축되는 사회적 주택단지에 어린이집 1곳과 음악전문학교가 신설되고, 19구에는 앙드레 시트로앵 공원과 마틴 루터 킹 공원이 확장되면서 62헥타르에 달하는 긴 선형의 녹지가 형성될 것임

○ 문화센터 5곳과 체육관 1곳, 체육센터 3곳, 수영장 1곳, 도서관 1곳 등이 신설되며, 10개의 학교가 신축되거나 개 · 보수될 것임

○ 외곽 순환도로를 안전하고 오염이 적은 도로로 만들 것임

○ 2014년 1월 10일부터 파리 외곽 순환도로의 최대 주행 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에서 시속 7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되었음. 이 조치로 인해 외관순환도로 주변 10만 주민에게는 상당한 소음공해 저감 효과를, 그리고 5% 이상의 파리市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와 23%의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유럽 제1의 혁신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갈 것임
○ 2014년 부시코(Boucicaut) 벤처센터가 문을 열면서, 파리는 총 10만 제곱미터의 공간에 신생기업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음
○ 파리는 유럽 제1의 혁신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이며 경쟁력과 활기 있는 5개 도시 안에 꼽힘. 이것은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의 평가임
○ 파리의 주인은 시민임
○ 파리의 역동성은 파리 인구의 변동에서도 나타남. 파리의 인구는 11년간 12만 4천명이 증가했으며, 지난 13년간 8만 2천개의 기업이 창업되었음
○ 시민이 파리市의 미래를 책임질 주인임. 다가오는 3월에 치러질 파리 시장과 시의회 선거 투표에 파리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람
○ 파리市는 2014년에도 8월의 파리市 해방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시민들을 한 마음으로 모을 예정이며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정신과 가치, 그 의미를 되새길 것임
○ 세 번째 시장임기를 마치면서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는 실수를 한 적도 있지만 충실했다"는 것을 전하고 싶음. 여기서 충실함이란 목적을 시민과 함께 성실히 달성 하고자 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파리의 가치를 유지고자 하였음

http://www.paris.fr/accueil/accueil-paris-fr/retrouvez-les-voeux-du-maire-aux-elus-du-conseil-de-paris/rub_1_actu_139419_port_24329

베를린市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Klaus Wowereit) 시장

○ 우리는 지난해 유래 없는 경기호황으로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실업은 현저히 감소했으며 2014년에도 이 호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베를린은 지난해 독일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임.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했고 이주해 온 모든 사람들을 수용함
○ 이주 인구가 불러온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과 문화와 과학 발전, 그리고 인구구성의 다양성으로 인해 새로운 주거공간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무실과 사업장이 새로 생기는 등 도시가 더 다채로운 컨텐츠를 갖게 됨
○ 2014년 가을에는 평화혁명을 통한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을 맞이함
○ 이를 계기로 세계의 관심이 다시 한 번 베를린으로 쏠리게 되면, 역사적 계기로부터 어떻게 기회를 만들고 이를 발전시켰는지 증명이 필요함
○ 세계를 향해 열어놓은 개방성은 베를린 발전의 원동력으로 그동안 베를린은 통일만 완수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관용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갖춘 대도시로 발전하였음
○ 2014년은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성장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임
○ 도시는 변화해왔고 계속 변화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경기가 위축될까 염려도 있으나 올해는 지금의 경제성장을 각 개인의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 일자리,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베를린은 시민들의 포용을 기반으로 인간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음
○ 베를린의 특징은 특수한 인구구성으로 서로 다른 출신의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는 것인데 이러한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결속임. 선입견으로 타자와 소수그룹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과, 관용의 제스처를 나타내는 시민적 자세가 필요함.
○ 도시를 공동체로 만들어주는데 큰 기여를 하는 자원봉사 활동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에 참여해준 시민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참여를 부탁함

http://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3/pressemitteilung.59835.php

본 내용은 서울연구원 해외 도시정보 소식지인 '세계도시동향'을 관련기관 협의 아래 일부 발췌하여 정리